

해외 프로젝트금융(PF) 시장 동향

(‘21.9.30,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 목 차 ~

I. 글로벌 PF 시장 동향

1. 글로벌 PF 시장
2. 글로벌 PF 대출 시장
3. 글로벌 PF 채권 시장
4. 국제개발금융기관 PF 지원 현황

II. 시사점

I.

글로벌 PF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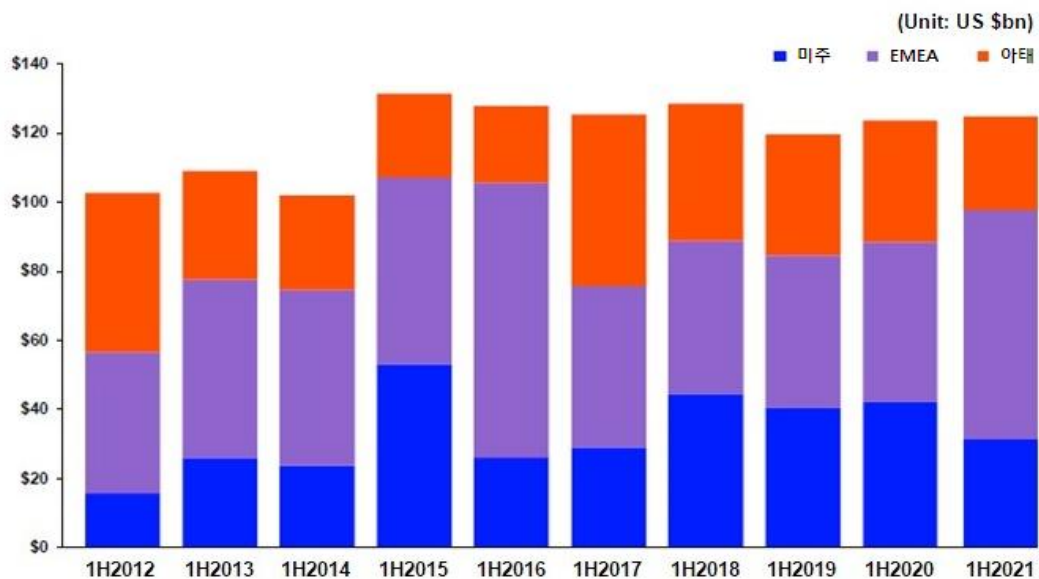
1. 글로벌 PF 시장

- 2021년 상반기 전세계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규모는 약 1,632억불을 기록하며 2020년 상반기 1,386억불 대비 17.7% 증가함 (출처: PFI, 2021 Mid-Year Review)

2. 글로벌 PF 대출 시장

- Loan 시장의 규모는 1,245억불로 전년 동기(1,236억불) 대비 불과 0.7% 증가에 그쳤으나, 건수 기준으로는 317건에서 360건으로 43건 증가함
-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의 상반기 프로젝트 규모 추이와 유사한 규모를 보였으며, 이 흐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송유관, 석유화학 프로젝트들과 미국, 유럽 국가들의 여러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견인함

- 최근 10년 상반기 Loan 시장 규모 추이 -



* 출처: PFI,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 First Half 2020, 2021 Mid-Year Review

- 21년 하반기는 미국, 영국, 아시아 쪽에서 해상풍력 에너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주간사 별) 21년 상반기 대출을 주선한 은행 중 1위는 20년 상반기와 동일한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 (SMFG)이었으며, 한국산업은행은 약 17.7억불의 규모로 12건을 주선하며 전년 동기(15.9억불, 11건) 대비 1계단 상승한 16위에 랭크됨

- 21년 상반기 주간사 별 Loans League Table -

순위	회사 (전년 동기 순위)	금액 (백만불)	비중	건수
1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 Inc (1)	8,078.2	6.5%	70
2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2)	5,864.9	4.7%	59
3	Mizuho Financial Group (5)	4,702.3	3.8%	32
4	Societe Generale (3)	4,340.0	3.5%	52
5	Credit Agricole CIB (6)	3,810.9	3.1%	40
6	Santander Corporate & Investment Banking (8)	3,640.3	2.9%	41
7	Natixis (9)	3,616.1	2.9%	31
8	BNP Paribas SA (4)	3,545.1	2.9%	38
9	ING (11)	3,198.6	2.6%	44
10	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 (NA)	2,385.9	1.9%	12
11	CIBC World Markets Inc (16)	2,139.3	1.7%	22
12	IMI - Intesa Sanpaolo (NA)	1,996.9	1.6%	25
13	State Bank of India (7)	1,912.0	1.5%	5
14	Standard Chartered PLC (NA)	1,836.5	1.5%	14
15	Gazprombank (NA)	1,798.3	1.4%	2
16	Korea Development Bank (17)	1,765.5	1.4%	12
17	Citi (13)	1,660.3	1.3%	10
18	KfW IPEX-Bank GmbH (24)	1,568.1	1.3%	17
19	CaixaBank SA (21)	1,494.0	1.2%	15
20	Bank of China Ltd (22)	1,482.1	1.2%	12

* 출처: PFI,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 First Half 2020, 2021 Mid-Year Review

- SMFG, MUFG, Mizuho 등 일본 은행들은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하며 전체 Loan 시장의 15%를 점유했고, 1위인 SMFG는 2위 MUFG를 20억불 이상의 큰 격차로 앞섬

- 프랑스 3대 은행은 9.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5%p 감소했고, 특히 BNP Paribas SA는 4위에서 8위로 하락하며 상위 5위권 밖으로 벗어났음
- (지역 별) EMEA지역이 650억불로 전체 프로젝트 Loan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을 이끌었고, 미주와 아태 지역은 20년 상반기 대비 감소함

- 21년 상반기 지역 별 Loans 전년 동기 비교 Tabl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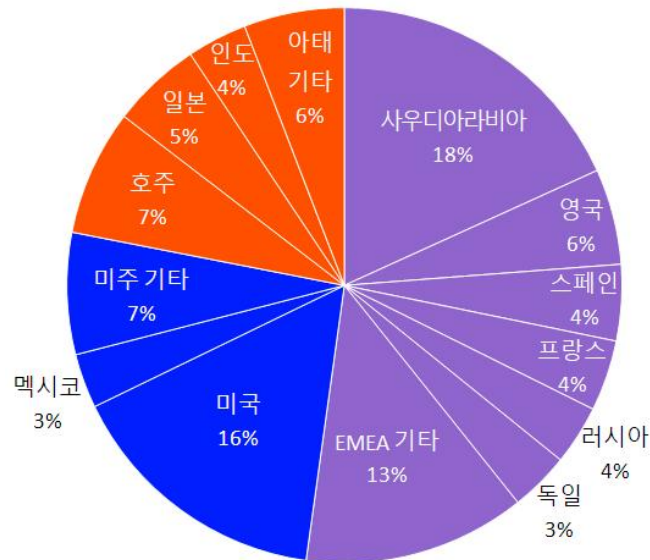
지역	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금액 증감률 (%)
	금액(억불)	비중(%)	금액(억불)	비중(%)	
EMEA	650	52	462	37	40.7 ↑
미주	322	26	422	34	-23.7 ↓
아태	273	22	352	29	-22.4 ↓
합계	1,245	100	1,236	100	

* 출처: PFI,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 First Half 2020, 2021 Mid-Year Review

- (EMEA) 20년 상반기(462억불) 대비 40.7% 증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총 6건의 프로젝트로 226.7억불의 Loan을 발생시키며 국가별 Loan 시장에서 18.2%의 점유율로 1위에 랭크됨. EIG 컨소시엄의 Aramco 송유관 인프라 투자 건과 Aramco와 Dow의 Sadara 석유화학 프로젝트 채무조정 건이 이에 기여함
- (미주) 20년 상반기(422억불) 대비 -23.7% 감소한 322억불 기록. 전세계 국가별 규모 2위를 차지한 미국은 다수의 태양광 프로젝트와 LNG 수출 프로젝트 리파이낸싱 등을 위해 총 194.3억불의 Loan을 사용함. 멕시코는 40억불에 약간 못 미치며 캐나다를 제치고 미주 2위를 차지함
- (아태) 전년 상반기(352억불) 대비 -22.4% 감소한 273억불 기록. 코로나19의 여파로부터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호주가 91.4억불의 Loan으로 아태지역에서 33.4%의 점유율을 차지함

며 21년 상반기도 지난 5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비중이 컸음. 호주는 전년 동기(153억불) 대비 규모가 -60억불 이상 감소했으나, 코로나 확산을 최소화하여 다른 아태 국가들 대비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짐. 우리나라는 4건으로 11억불의 Loan을 발생시키며 세계 21위에 랭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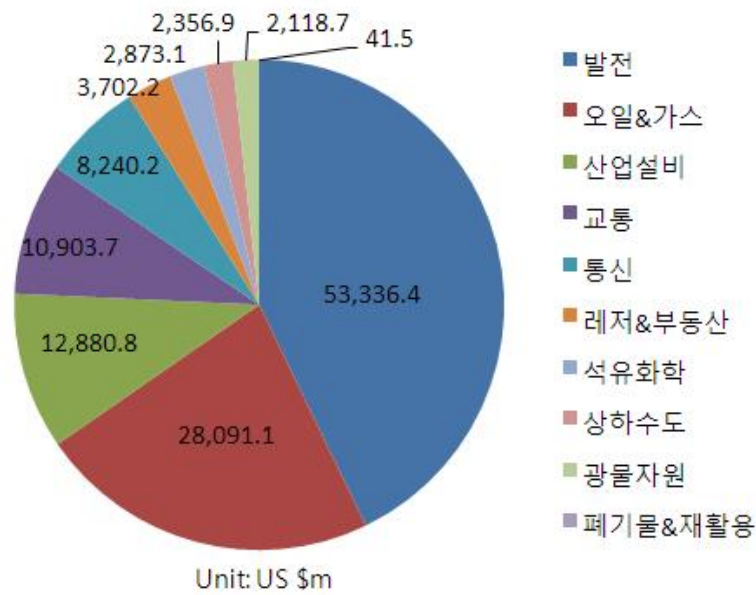
- 21년 상반기 주요 국가 별 Project Loans 규모 -



* 출처: PFI, 2021 Mid-Year Review

- (공종 별) 발전이 533.4억불(42.8%), 오일&가스가 280.9억불(22.6%)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으며, 그 외 산업설비(10.3%), 교통(8.8%), 통신(6.6%) 순으로 규모가 컸음
- 발전 부문의 Loan은 약 77% 이상인 414억불이 신재생 분야에서 발생
- 20년 동기 대비 큰 증가율을 보인 공종 중 통신(+95%)은 디지털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향후 더 활발한 거래가 기대되어 점점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

- 21년 상반기 공종 별 Project Loans 규모 -



* 출처: PFI, 2021 Mid-Year Review

- 21년 상반기 공종 별 Loans 전년 동기 비교 Table -

공종	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금액 증감률 (%)
	금액(억불)	비중(%)	금액(억불)	비중(%)	
발전	53,336.4	42.8	53,949.7	43.6	-1.1 ↓
오일&가스	28,091.1	22.6	36,617.8	29.6	-23.3 ↓
산업설비	12,880.8	10.3	3,305.9	2.7	289.6 ↑
교통	10,903.7	8.8	12,427.6	10.1	-12.3 ↓
통신	8,240.2	6.6	4,256.8	3.4	93.6 ↑
레저&부동산	3,702.2	3.0	2,330.1	1.9	58.9 ↑
석유화학	2,873.1	2.3	5,949.6	4.8	-51.7 ↓
상하수도	2,356.9	1.9	1,276.7	1.0	84.6 ↑
광물자원	2,118.7	1.7	3,521.1	2.8	-39.8 ↓
폐기물&재활용	41.5	0.03	-	-	
합계	124,544.6	100	123,635.3	100	

* 출처: PFI,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 First Half 2020, 2021 Mid-Year Review

3. 글로벌 PF 채권 시장

- Bond 시장은 387.7억불로 전년 동기(150억불) 대비 158% 대폭 증가
 - 가까운 미래에 금리가 상승할 것을 우려한 사업주들이 채권 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21년 상반기 Bond 시장이 활기를 띠
- (주간사 별) Loan 규모 16.6억불로 17위에 그친 Citi가 Bond 주선 1위를 차지, Loan 부문 상위 5위 안에 포함된 금융기관 중 MUFG와 Mizuho만이 Bond 부문에서도 상위 5위내 랭크됨

- 21년 상반기 주간사 별 Bonds League Table -

순위	회사 (전년 동기 순위)	금액 (백만불)	비중	건수
1	Citi (18)	2,695	7.0%	16
2	HSBC Holdings PLC (16)	2,568	6.6%	12
3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1)	2,461	6.3%	17
4	JP Morgan (3)	2,258	5.8%	14
5	Mizuho Financial Group (26)	2,214	5.7%	10
6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6)	2,150	5.5%	10
7	Santander (9)	1,879	4.8%	14
8	Credit Suisse (22)	1,672	4.3%	10
9	Credit Agricole CIB (2)	1,470	3.8%	10
10	BofA Securities Inc (5)	1,395	3.6%	8
11	Societe Generale (17)	1,321	3.4%	9
12	RBC Capital Markets (4)	1,249	3.2%	7
13	CIBC World Markets (15)	1,186	3.1%	6
14	Barclays (14)	1,032	2.7%	11
15	National Australia Bank (NA)	1,019	2.6%	6
16	Scotiabank (13)	996	2.6%	5
17	Goldman Sachs (25)	820	2.1%	6
18	ING (20)	781	2.0%	5
19	Morgan Stanley (22)	692	1.8%	4
20	Natixis (NA)	640	1.7%	5

* 출처: PFI,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 First Half 2020, 2021 Mid-Year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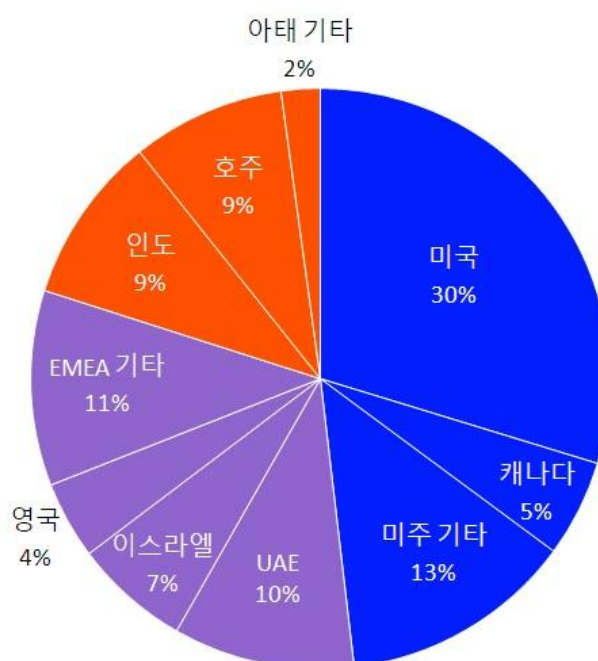
- (지역 별) 전지역 Bond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 미국을 필두로 하여 미주가 전세계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함

- 21년 상반기 지역 별 Bonds 전년 동기 비교 Table -

지역	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금액 증감률 (%)
	금액(억불)	비중(%)	금액(억불)	비중(%)	
EMEA	123.2	32	63.6	42.3	93.7 ↑
미주	186.6	48	76.8	51	143.0 ↑
아태	77.9	20	10.1	6.7	671.3 ↑
합계	387.7	100	150.5	100.0	

* 출처: PFI,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 First Half 2020, 2021 Mid-Year Review

- 21년 상반기 주요 국가 별 Project Bonds 규모 -



* 출처: PFI, 2021 Mid-Year Review

- (미주) 20년 상반기 76.8억불에서 143% 증가하며 가장 큰 규모인 186.6억불을 기록함. 미국이 20년 상반기(54.5억불) 대비 111% 증가한 115억불의 규모로 전세계 Bond 시장을 선도함

- (EMEA) 전년 동기(63.6억불) 대비 약 2배인 123.2억불의 시장을 형성하며 크게 성장함. 1위인 미국의 약 1/3 규모인 39억불로 UAE가 국가별 Bond 발행 2위에 랭크됨
- (아태) 77.9억불의 규모로 20년 상반기(10억불) 대비 7.7배 이상 성장하였으나 다른 지역 대비 규모가 작음. 인도가 6억불에서 36억불, 호주가 4억불에서 33억불로 증가하며 전년과 마찬가지로 아태 지역 Bond 발행 규모의 큰 부분을 차지했고, 그 뒤를 뉴질랜드가 이었음
- (공종 별) 오일&가스 부문이 20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석유화학 부문이 6배 넘게 성장한 것이 특징적. 통신과 산업설비 부문은 채권 발행이 없었음

- 21년 상반기 공종 별 Bonds 전년 동기 비교 Table -

공종	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금액 증감률 (%)
	금액(억불)	비중(%)	금액(억불)	비중(%)	
오일&가스	189.25	48.8	56.4	37.4	235.8 ↑
발전	69.8	18	32.9	21.9	112.0 ↑
교통	59.5	15.3	29.2	19.4	103.8 ↑
석유화학	52.6	13.6	8.2	5.5	539.5 ↑
광물자원	9.6	2.5	-	-	-
레저&부동산	5.1	1.3	17.8	11.8	-71.4 ↓
상하수도	1.85	0.5	-	-	-
통신	-	-	5.4	3.6	-
산업설비	-	-	0.6	0.4	-
합계	387.7	100	15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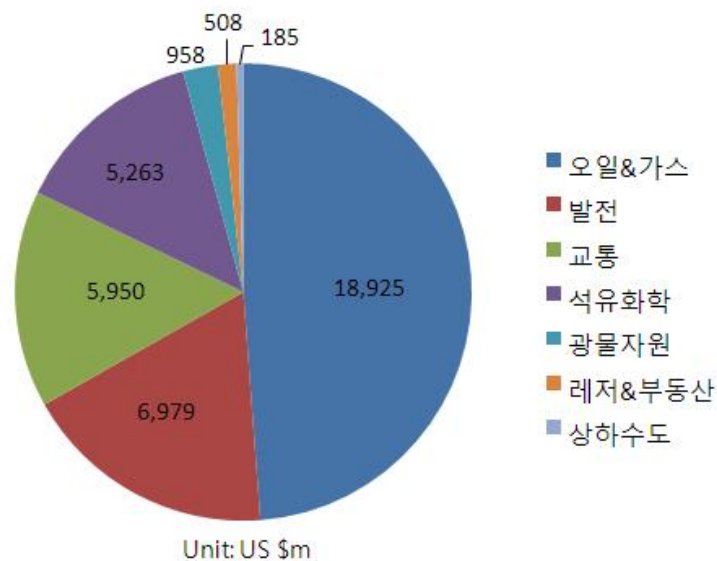
* 출처: PFI,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 First Half 2020, 2021 Mid-Year Review

- 오일&가스 분야가 189억불로 Bond 시장 규모의 절반 가까이(48.8%)를 차지하며 시장 활황을 견인, Energean의 이스라엘 가스전 리파이

낸싱(25억불) 외에 다수의 오일&가스 인프라시설 매각 건 리파이낸싱이 큰 비중을 차지함

- 시장 규모는 오일&가스에 이어서 발전(18%), 교통(15.3%), 석유화학(13.6%)이 그 뒤를 이었음

- 21년 상반기 공종 별 Project Bonds 규모 -



* 출처: PFI, 2021 Mid-Year Review

4. 국제개발금융기관 PF 지원 현황

- 21년 상반기 국제개발금융기관의 PF 지원방식은 직접대출(direct lending)이 87%, 지급보증(guarantee)이 13%를 차지함
- (개도국) 개도국 대상 PF 지원은 19년 상반기 115억불, 20년 상반기 72억불, 21년 상반기 61억불로 점점 규모가 작아지고 있음. 21년 상반기 구성은 직접대출 50억불, 지급보증 약 11억불 규모로 집계됨. 21년 상반기 총 금액이 가장 컸던 기관은 JBIC/Nexi(14.3억불, 5건)였으며, 그 다음은 2건의 직접 대출로 9.45억불을 활용한 Kexim/K-sure였음

- (선진국) 선진국 대상 PF 지원은 개도국 지원 금액의 약 50%인 31억 불이었으며, JBIC/Nexi가 총 규모 19.5억불(7건)로 가장 앞섰음

- 개도국 대상 기관별 PF 실적 -

순 위	기관명	직접 대출 (억불)	지급 보증 (억불)	총 규모 (억불)	건 수
1	JBIC/Nexi	7.9	6.4	14.3	5
2	Kexim/K-sure	9.45		9.45	2
3	IFC/ World Bank/ MIGA/IBRD	2.44	4.5	6.94	4
4	IDB/ IDB Invest	3.8		3.8	4
5	Chexim	3.3		3.3	1
6	EBRD	2.8		2.8	4
7	Proparco	2.6		2.6	3
8	IDB Invest	2.5		2.5	2
9	CAF	2.3		2.3	1
10	AIIB	2.25		2.25	2
11	ADB	1.4		1.42	2
12	Sinosure	1.4		1.4	1
13	OFID	1.2		1.2	3
14	AfDB/African Development Bank	1.1		1.1	3
15	ICO	1.1		1.1	3
16	DEG	0.95		0.95	2
17	FMO	0.9		0.9	2
18	CDC	0.5		0.5	1
19	DBSA	0.5		0.5	1
20	EIB	0.46		0.46	1
21	China Co-financing fund for Latin America and Caribbean	0.36		0.36	1
21	EAIF	0.36		0.36	1
23	OeEb	0.3		0.3	2
24	JICA	0.25		0.25	1
합계		50.3	10.9	61.2	52

- 선진국 대상 기관별 PF 실적 -

순 위	기관명	직접 대출 (억불)	지급 보증 (억불)	총 규모 (억불)	건 수
1	JBIC/Nexi	19.5		19.5	7
2	EIB	7.5		7.5	4
3	CEFC	2.0		2.0	3
4	EKF		1	0.98	1
5	KfW	0.7		0.7	1
6	EBRD	0.3		0.3	1
합계		30	1	31	17

* 출처: PFI, 2021 Mid-Year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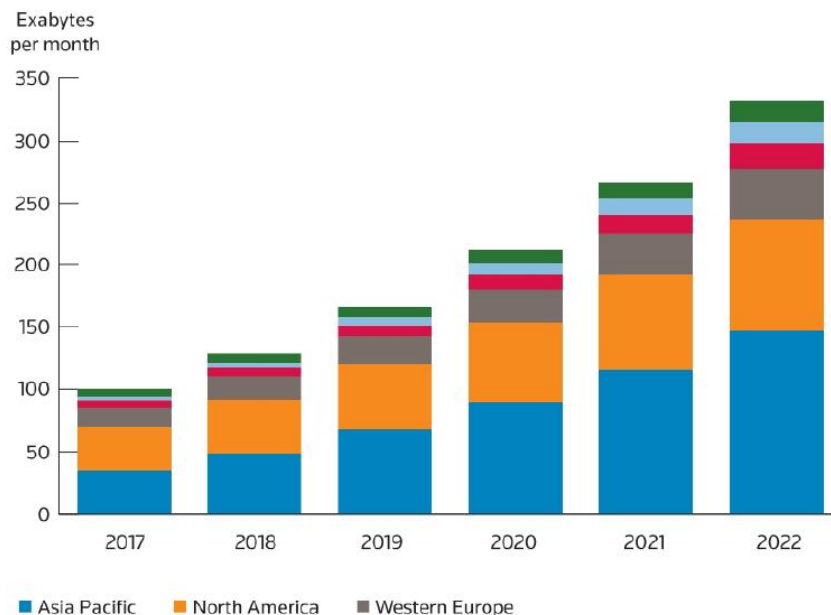
II.

시사점

◦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디지털 인프라¹⁾ 산업의 지속적 성장 예상

- Cisco는 2019년 전세계 데이터 트래픽이 17년부터 22년까지 매년 27%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근이 더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흐름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Cisco 추산 17~22년 데이터 트래픽 변화 추이 -



Source: Cisco VNI, 2019

* 출처: PFI, June 2021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 Special Report

- 실제로 봉쇄 정책이 세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에도 데이터 트래픽은 꾸준한 증가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센터를 필두로 디지털 인프라 시장은 더 성장할 것

1) 디지털 인프라는 기존의 광섬유 통신망 구축에서 데이터 센터 건립까지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 시설과 인프라 전반을 망라함

- 아태 지역의 데이터 센터 산업은 2025년까지 280억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국 정부들이 국내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음. 일례로, 인도는 자국기업들이 국내외 대주단으로부터 더 용이한 조건으로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계획 중
-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멈춤 없이 가동되기 때문에 세계 기후대응 흐름에 맞춰 환경에의 영향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수소 등을 활용한 친환경 발전,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쿨링 시스템, 해저 데이터 센터 등 적절한 친환경 기술 도입이 필수적임
- 디지털 인프라 대출 1차 시장에서는 유명한 금융기관들 위주로 PF가 진행되고 있으나, 2차 시장에서는 디지털 인프라 펀드를 비롯하여 연기금, 보험기금 등이 참여를 늘리고 있음
- 우리 건설사들이 IT기업, 금융기관 등 여러 주체들과 협력하여 향후 디벨로퍼(단순 EPC 형태가 아닌 부지 매입, 기획, 시공, 설비 운영까지 전과정 총괄)로서 더 많은 디지털 인프라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세계 PF시장에서 그린론, SLL 활용 증가 추세

- **그린론(Green Loan)²⁾**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사용이 한정되는 반면, **SLL(Sustainability-linked loan, 지속가능연계대출)³⁾**은 친환경 목적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기업 프로젝트에 사용 가능한데, 차입기업과 대출은행이 미리 협의한 ESG 평가기준(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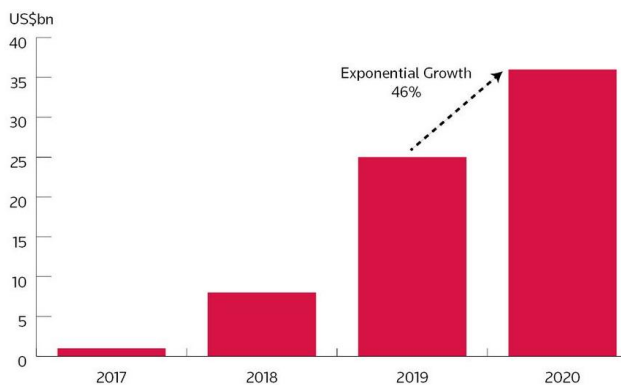
2)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와 같은 친환경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만 사용되도록 용도가 제한된 대출로, 일반 대출보다 유리한 금리 조건과 분할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

3) 기업의 활동이 ESG 기준을 충족하는 동안에는 낮은 금리를,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금리 인상 패널티를 적용받는 방식이며, 외부 ESG평가기관이 기업의 ESG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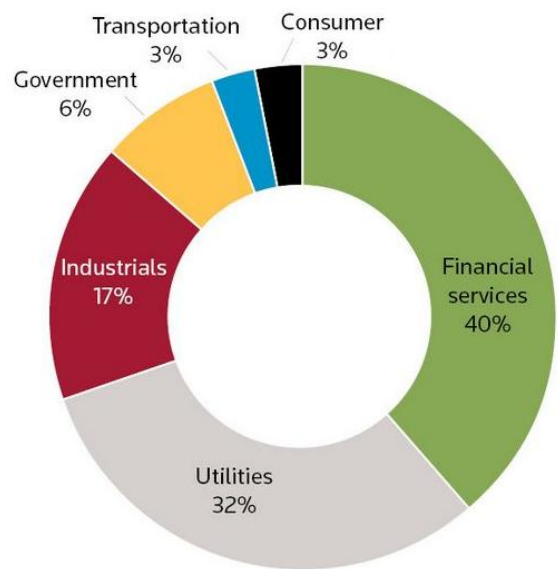
효율 등)에 따라 금리가 설정됨

- 대주, 차주, 사업주, 시공사 모두 자체 ESG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점점 활용을 늘려가고 있으며, 특히 차주와 사업주는 유리한 금리에 다양한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아태 지역에서의 그린론과 SLL 사용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으며, 20년 아태 지역(일본 제외)의 규모는 352억불에 달했음. 교통(3건)과 사회 인프라 부문(0건)의 비중은 현재 낮지만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아태(일본 제외) 그린론&SLL 전체 규모 -



- 20년 아태(일본 제외) 그린론&SLL 부문별 규모 -



Source: Refinitiv

* 출처: PFI, June 2021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 Special Report

- 건설사들은 금융기관들과 그린론, SLL 관련 금융 협약을 맺어 프로젝트 수주와 자체 ESG 목표 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 모색 필요

◦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증가세 지속 예상

- 미국은 2035년까지 발전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시킬 예정*

* Fitch Solutions에서는 미국의 비수력 재생에너지 용량이 2020년 231.6GW에서 2030년 436.5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영국은 해상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풍력 발전이 향후 10년 내 33GW 더 성장하고, 태양광 발전은 5GW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활성화 흐름에 다른 국가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프로젝트 추이 지속 확인 필요